광주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年 200여건

최근 3년 5대 범죄 정신질환 피의자 검거 617건

폭력 323건 · 절도0235건 · 성범죄 45건 등 順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5대 범죄(살인 · 강도 · 성범죄 · 절도 · 폭력)를 저지른 정신질환 피의자 검거 건수가 해마다 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역 정신질환자에 의한 5대 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194건 · 2017년 214건 · 2018년 209건 등 총 617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평균 200여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3년 정신질환자에 의한 5대 범죄 가운데 폭력이 3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 235건 · 성범죄 45건 · 강도 3건 · 살인 1건 순이었다.

정신질환 피의자 617명 중 구속된 경우는 총 30건(4.86%)이었다.

경찰은 전문의료진의 진단과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정신이상자 · 정신박약(지체장애) · 기타 정신장애(분노조절 등 성격장애) 등으로 정신질환 피의자를 분류하고 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하는 정신질환 피의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의사의 동의를 거쳐 72시간 동안 응급입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입원 기간 동안 관리대상자에 대한 의료진의 심리평가를 통해 추가 입원 여부가 결정된다. 동시에 경찰이 의료기관을 방문, 피의자 조사를 진행된다.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자기의사에 의한 입원 ▲보호자 동의 입원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등으로 전환, 추가 입원조치가 진행된다.

응급입원만으로 의료기관 보호가 끝나거나, 추가 입원 뒤 퇴원한 관리대상자는 지역 내 광역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맡아 관리한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정신과적 자 · 타해 위험자 응급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조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치료를 진행하는 한편, 안정적 치안 유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두레청과 대표 고발 당해

광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중인 두레청과(주) 공동대표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두레청과(주) 전 직원이었던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동안 두레청과 대표이사들이 문서위조와 조세포탈, 배임을 저질러 왔다며 고발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두레청과는 2004년 4월 개장된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수탁 받아 두레청과(주)를 운영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공동대표로 있는 한 모 부녀일가가 해당 수익을 보유주식에 따라 배당할 경우 부과되는 법인세법을 위반하였으며 주주총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조세포탈은 물론 업무상 배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은홍 기자

'소한'에 핀 홍매화 절기상 소한인 6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꽃망울을 터뜨린 홍매화를 구경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150㎍/㎥ 이상땐 중작업 조정…가이드라인 마련

초미세먼지 150㎍/㎥ 이상땐 중작업(重作業)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등의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 단계',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미세먼지 예보기준으로 나쁨 수준까지는 사전준비 단계로 정하고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하도록 했다.

민감군이란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미세먼지 예보기준 매우나쁨 수준에서는 주의보 단계와 경보 단계로 나눠 지침이 마련됐다.

초미세먼지(PM2.5) 75㎍/㎥ 이상 또는 미세먼지(PM10) 150 ㎍/㎥ 이상의 '주의보 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지급해 쓰게 하고,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다.

중작업이란 인력으로 중량물 옮기기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작업으로 보호구 착용 상태에서 더 많은 호흡 에너지를 쓰게 됨에 따라 휴식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초미세먼지(PM2.5) 150 ㎍/㎥ 이상 또는 미세먼지(PM10) 300 ㎍/㎥ 이상의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 확인해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수준 별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10년간 전기용품 화재 2만4천건…1~2월 집중

소방청은 6일 전기장판 등 전열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1~2월에 화재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기용품관련 화재는 총 2만4556건이다. 이 가운데 1~2월에 열선, 난로 등 전열기기 화재는 7595건(30.9%)이었다. 겨울철 난방관련 전기용품 화재는 열선 1179건(15.5%), 전기히터 834건(10.9%), 전기장판 784건(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산물 알레르기' 美 소년, 구이 연기 탓 사망

해산물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미국 11세 소년이 집 안에서 생선을 굽는 연기를 들이마셨다가 사망했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머런 장피에르는 천식 치료차 뉴욕을 찾았다가 할머니집을 방문했다.

할머니는 생선구이 요리를 하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집 안에 들어선 장피에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시작했다.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장피에르는 과거 발작이 있었을 때 사용했던 흡입기를 꺼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스티븐 장피에르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서둘러 911에 전화를 걸었다"며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아빠 사랑해, 나 지금 죽는 거 같아'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피에르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생선구이 연기를 들이마셔 사망했다고 말했다.

뉴욕 검시관 측은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NBC방송에 따르면 경찰은 장피에르의 죽음에서 타살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600만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생선을 포함한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콘신주의 한 알레르기 및 천식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애들러 테일러 박사는 "해산물을 요리하면서 발생하는 연기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특히 밀폐된 공간의 경우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아메리칸항공서 전자담배 배터리 과열 화재

미 라스베이거스를 떠나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에서 한 승객의 전자담배 배터리가 과열돼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고 아메리칸 항공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아메리칸 항공의 레슬리 스콧 대변인은 아메리칸 항공 168편 항공기가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착륙한 직후 한 승객의 전자담배 배터리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지만 여객기 승무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압됐다고 말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138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 등 144명의 탑승자 모두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내렸다.

印북부 스쿨버스 협곡 추락 학생 등 7명 사망

인도 북부의 산악지대 도로에서 5일 스쿨버스가 협곡 아래로 떨어져 어린 학생 6명과 운전기사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의 어린이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인도 경찰이 밝혔다.

로히트 말파니라는 경찰 관계자는 히마찰 프라데시주의 산악 도로를 달리던 스쿨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말파니는 운전기사와 5~14살의 학생 3명은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다른 학생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을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도에서는 연간 약 15만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부주의한 운전과 도로 여건 불량, 정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승객 탑승 등이 많은 교통사고를 부르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폭탄 해체하던 이집트 경찰 사상자 2명 발생

이집트의 콥트교(기독교) 교회에서 5일(현지시간) 폭탄을 해체하던 카이로의 경찰관 2명 중 한 명이 폭발로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국영 MENA통신이 보도했다.

이 사건은 이집트의 콥트교인들이 성탄절로 지내는 1월 7일을 이틀 앞두고 발생했다.

이 날 카이로시내 나세르시티의 성모 아무 세페인 콥트 정교회 인근에서 경찰관들은 폭탄이 든 가방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폭탄의 해체를 시도하다가 터지는 바람에 참변을 당했다.

아직 이 폭탄을 터뜨린 배후임을 주장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았다.

이집트 전체 인구 1억명 가운데 10%를 차지하고 있는 콥트 교도는 크리스마르를 1월 7일로 정해 축하하고 있다. 이집트 군은 내무부와 협력해서 성탄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보안을 강화했다.

뉴시스